

# 2017年 司教年頭書簡 (韓国語版)

2017년 주교사목서간

## 「주님이야말로, 우리의빛」

~ 유스토다카야마 (高山) 우콘(右近)을 통해 성화의 길로 ~

교토교구 주교 바오로 오오츠카 요시나오

### 유스토다카야마우콘의 시복식

하느님의 종 유스토다카야마우콘(이하, 우콘)의 시복식이 2017년 2월 7일 오사카시(오사카성 홀)에서 거행됩니다. 우콘이 시복되는 은총속에 우리들은 지금 우콘을 통해 이 세상의 구원이며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콘 찬가에 나온대로 「주님이야말로, 우리의빛」이라고 우콘과 함께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저는, 일본 가톨릭 주교협의회·시복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시복운동을 추진하며 우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우콘이 일본교회에 내려진 하느님의 은총이며 선물인 것을 알았습니다. 시복식을 앞두고 일본교회가 우콘시복의 은혜를 어떻게 살려 가야 할지를 같이 생각해 봅시다.

### 1. 성화의 길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함

가톨릭교회는 신앙 증거에 있어서 모범을 보인 사람들을 성인이라 부르고, 특별히 공경해 왔습니다. 어느 성인에게도 그 시대와 장소에서 보여준 독자적인 신앙의 증거와 보편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성의 의미란, 성인의 증거와 메시지를 지금을 사는 우리들이 모범으로 삼고, 또 후세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시성이나 시복을 과거의 위인을 칭하기 위한 보장이나 훈장 수여와 같이 이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제 2 바티칸 공회회의는 순교자들의 성인 공경에 대해, 보다 영적이고 사목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교회현장은 모든 그리스도인에 요구되는 성화 소명에 대해 말하는 것 중에서 (교회현장 39~42), 교회에 있어서의 거룩함은, 신자들이 「자기 삶에서 사랑의 완덕을

지향하며 남들을 감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개인들에게서 여러가지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며(동 39), 성화의 수단은 「하느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그 하나의 형태인 순교는 「최상의 은혜이며 사랑의 최고 증거」(동 42)라고 설명합니다.

성인(聖人)이란, 감탄해야 할 초인도 영웅도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들은 성인을 가깝게 느끼지 못하고 멀게 느껴지고 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의 실천을 통해 거룩함을 몸에 익힌 사람이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인이란 예외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보통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인은 단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보통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시대와 장소에 있어서는 지극히 비범한 삶의 태도로 비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속적인 삶의 태도에 대항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산상 수훈(마태5장)의 행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지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성인들의 모범을 자신의 생활로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대, 어떤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이 성화의 길을 걸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보편적인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우콘(右近)이라는 한 사람의 삶의 앞에서 있는 것입니다.

## 2. 우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콘은 그 독특한 삶의 태도에 의해 증거성인이 아니고 순교자로서 시복됩니다. 우콘은 처형에 의한 순교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박해와 추방속에서 지속적인 순교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콘이 살았던 16 세기에서 17 세기 초반에는 아쯔지(安土) 모모야마(桃山) 시대부터 에도(江戸) 시대에 걸쳐 오랫동안 지속된 전란이 드디어 막을 내리고, 나라가 통일을 향하는 시대였습니다. 지혜와 재치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출세와 권력, 명예와 번영의 꿈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콘은 그러한 시대의 무가(武家)의 집에서 태어나, 보다 나은 지위를 목표로 하는 전국무장(戰國武將)들의 세계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히다노카미(飛騨守)가 그리스도교에 입교함으로써 타카야마가(高山家)의 운명은 시대의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10 살 때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은 우콘(右近)은 전국무장으로서 성장했지만, 스무살의 때 와다코레나가(和田惟長)사건(1573 년)을 계기로 신앙에 눈을 뜨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에게 이끌려 갑니다.

프란치스코 자비에르를 비롯해 당시의 선교사들은 전국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스도교의 본질이라 보고, 그리스도의 수난 속에서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자비가 가득 찬 사랑을 인식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러러보고 하느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바치는 것이 명예라고 가르쳤습니다. 박해를 받아 처형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은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형을 바랬습니다. 우콘도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의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였고, 그뿐만이 아니라 박해로 인한 괴로움과 순교마저도 신앙에 통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우콘은 태어나면서 의지가 굳고,

덕이 있는 무사였던 것도 아니고,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것도 아닌, 무장(武將)으로 삶을 살아감으로써 술한 곤란과 갈등 속에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배워 왔던 것입니다.

### 3. 우콘(右近)의 고뇌와 신앙의 시련

우콘의 고뇌의 출발은 그 생사(生死)의 가치관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국시대에서는 죽음은 정말로 일상이었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죽음을 당한다. 죽이는 것은 무도한 짓임을 알면서도 가족이나 자기편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모질게 먹지 않으면 안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무사로서 태어난 이상 싸움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태어난 우콘은 어릴 때부터 섬세해서 싸움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죽음을 두려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제 자신이 죽음을 당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잠도 잘 수 없었고 사람에게 무참히 죽음을 당할 것이라면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콘에게도 사는 것에 집착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죽는 것에 대한 공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을 품고 우울한 매일을 보내고 있었던 소년 우콘의 고민을 이해해 준 것이 예수회수도자 로렌소 수사였습니다. 우콘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혐오를 로렌소 수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청년 무장이 된 우콘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야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치유되기는 커녕 한층 깊어져, 무사라 하는 지위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와다코레나가(和田惟長)의 사건을 계기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빠져들어, 생명을 경시하고 이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를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느님의 사랑과 생명에 봉사하는 삶 안에서 구원을 찾아내고 거기에 자신을 온전히 바칩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사람들을 하느님으로 부터 떼어 버리려 하는 괴로움은 유혹이 되고, 하느님에 대한 신뢰와 사람과의 사이를 갈라 놓으려 하는 괴로움은 시련이 됩니다. 우콘은 3 개의 큰 시련을 겪지만, 깨끗하게 이겨 냅니다. 첫 번째 시련은 아라키무라시게(荒木村重)의 사건(1587 년), 두 번째 시련은 히데요시(秀吉)의 바테렌(선교사) 추방령(1587 년), 그리고 세 번째 시련은 에도막부의 금교령(1614 년)이었습니다. 우수한 그리스도 다이묘(大名)로 인정받은 우콘은 오다노부나가(織田信長)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신뢰를 얻어서 중용되어, 출세가 약속된 길을 걷는 걸로 보였습디만, 내적으로는 신앙을 밀바탕으로 한 그리스도의 병사로서의 길을 선택하고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마저도 바칠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콘이 다카쓰키(高槻)에서 아카시(明石)로 새롭게 영지가 바뀌었던 그 때, 히데요시(秀吉)는 바테렌(선교사) 추방령으로 그리스도교에 대한 정책을 바꾸고 우콘에게도 배교를 강요했습니다. 우콘은 그것을 사양하고, 다이묘(大名)의 신분을 버리고 추방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쇼도시마(小豆島)나 히고(肥後)에서 몇년 은거 후, 카가(加賀)의 나라 마에다(前田)집에 몸을 숨기고, 결과적으로 26 년간을

노토(能登)(나나오(七尾))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도쿠가와(徳川) 막부(幕府)의 금교령에 의해 유죄가 되어 필리핀으로 추방당합니다. 마닐라에서는 살아있는 순교자와 같이 대환영을 받았습시다만 고령으로 가혹한 배 여행으로 인해 신체가 약해져 열병에 걸려, 40 일 후 1615년 2월 3일 그의 나이 63 세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 4. 살아가면서의 순교

첫 번째의 시련이 된 아라키무라시게(荒木村重)의 사건 때부터 우콘은 이 세상에서 인간을 섬기는 삶의 태도를 버리고, 목숨을 걸어서라도 하느님을 섬기는 삶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 때는 아직 자기봉헌의 은총을 하느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몰랐을 때였습니다. 우콘은 언제든지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살았고, 또 순교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콘에게 긴 시간 안에서 순교자가 되는 길을 마련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련에 있어서 우콘은 모든 것을 잃더라도 하느님을 굳건히 믿는 성숙한 신앙을 보여주며, 순교도 받아들이는 영적인 힘과 위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우콘의 신앙은 인간의 능력과 힘에 의거한 것이었습니다. 우콘의 깊은 종교심과 하느님에 대한 믿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하느님께서는 우콘을 잘못된 자신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서서히 하느님의 사랑을 사심 없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바라셨습니다. 추방당한 우콘은 순교에 대한 동경을 고이 간직 하면서도 시간의 흐름에 거역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사랑을 끈기있게 바라며 하느님이 인도하신 대로 여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선교를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우콘에게 주어진 살아가면서의 순교를 받아들이는 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콘은, 순교를 향한 적극적인 열망이 끊어지는, 그리고 가장 힘들고 깊은 세 번째 시련을 받게 됩니다. 가나자와(金澤)(카가(加賀藩))을 출발한 우콘은 처형에 의해 자신의 목숨을 영웅적으로 주님께 바치는 순교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가사키(長崎)에서 마닐라까지의 괴로운 여행을 강요당한 최후의 시간은 예상밖의 형태로 우콘을 결정적으로 참된 순교자로 바꾸었습니다.

#### 5. 하느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고난에 의한 순교

순교란 사람이 자신의 강함을 내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라는 것은, 하느님 자신이 약한 인간 속에서 행하시는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무서운 고문을 견디어 내면서 죽는 것에 순교자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현대의 우리들이 그것을 칭송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순교자는 희생자로서 폭력적인 죽음의 괴로움을 수동적으로 겪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교자는 최후의 순간까지 하느님에 뜻에 대하여 자유롭게 응답합니다. 이 응답만이

그 죽음을 참된 신앙의 증거 곧 순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외추방전의 9 개월간, 우콘은 처형을 각오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느님은 우콘에게 최후의 시련을 줍니다. 귀양지 마닐라는 신앙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우콘은 하느님께서 자신의 순교를 계속해서 바라셨지만, 그것은 즉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천천히 죽음에 고통에 이르게 하는 상태 즉 지속적인 순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우콘 자신이 죽는 여행이 되었습니다. 마닐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신의 운명이 자신의 수중에 없고 하느님 손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자기부정의 영적인 식별로 인해 우콘은 한층 겸손하게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콘은 숨을 거둘 때까지 하느님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싶다는 희망에 충실했습니다. 우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순교자)이 되고 싶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콘을 통해 이루어진 하느님의 섭리였습니다. 우콘의 죽음을 지켜 본 예수회 레데스마는 연보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콘은(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이)피와 죽음을 통해서 신앙을 증거한 순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젊어져 온 힘든 고생은 신앙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콘의 인생은 긴 순교 생활이었습니다.」

## 6. 우콘에게서 보는 순교의 거룩함(순교영성)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신앙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어느 시대에도 박해와 순교는 일어나므로 「모든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교회가 늘 겪고 있는 박해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교회헌장 42) 우콘에게 본받을 것은 우리들이 하느님 안에서 주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 자신의 힘에 의지하는 자아를 버리고 자비에 찬 사랑을 쏟아 주시는 하느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이 정도는 완수했다고 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느님이 행하시는 그 곳에 자신을 맡기는 세계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의해 자기가 바뀌는 것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의 영적인 열의를 이웃 사랑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콘이 보여준 성화의 길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어울리는 것입니다. 성화란, 자기완성을 자신의 손으로 완수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 이끌려 주님과 닮게 해주시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에 대해 바오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양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만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로마 8,29~30) 정말로 우콘은 그의 세례명대로 하느님에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은 이로서, 의롭게(유스토) 된 것이었습니다.

현대는 상대적 가치관에 지배되어 있어 신념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삶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약육강식의 경쟁사회이며, 살아가기 위해 자기

책임이 주어지며, 재능과 능력의 유무에 따라 승부가 갈려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우콘의 삶을 지침으로 삼아 어떠한 상황에 놓여 지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성화의 길을 선택하고, 흔들림 없이 복음을 따르는 삶을 계속해서 걸어 가야 합니다.

우콘은 일본 교회에 내려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일본 교회에 우콘을 복음의 도구로써 보내 주시고, 우콘을 통해서 활동하시며, 현대의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환혈류」(마루치루)의 마음으로 현대에 순교를 사는 결심을 새롭게 해서 우콘의 시복식을 맞이하고, 다음에 오는 시성의 은혜를 기원해 봅시다.

2017년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